

배우자 사별 노인의 대처자원, 배우자 죽음의 질이 사별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선택, 최적화, 보상(SOC)의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손 의 성¹⁾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홍 세 희²⁾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본 논문은 노년기의 가장 큰 생활스트레스인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의 사별적응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 및 대처전략 수준이 사별노인의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며, 대처전략이 배우자 죽음의 질 및 대처자원과 사별적응 사이를 매개한다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사별적응의 영향 요인 구조와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사별한 지 5년 이하의 402명(남=103 / 여=299)의 65세 이상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안된 연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전략이 대처자원과 사별적응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지만, 배우자 죽음의 질과 사별적응 간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자원과 사별적응 간의 대처전략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 간에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정과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주요어 : 사별, 사별적응, 죽음의 질, 대처자원, 대처전략

1)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E-mail : leasts@chol.com)

2)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I. 서론

사별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있어서 예상하였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간에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 된다. 사별은 오래 지속된 애정적 유대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며(Raphael, 1983), 건강과 안녕과 생산성을 위협하며(Clayton, 1979; Osterweis, Solomon & Green, 1984; Stroebe & Stroebe, 1987), 심리적 문제 및 재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복합적인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재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부로서가 아닌 사별자, 즉 홀로된 존재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지위를 갖게 되므로 그의 삶에 광범위한 충격을 받게 된다(Blieszner & Hatvany, 1996). 노년기에 사별을 하게 되면 슬픔, 죄의식, 후회감, 혼돈감, 목적 상실, 동기나 흥미의 상실 등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되며, 애도(mourning)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Rando, 1993). 그리고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Atchley, 1994). 노년기의 배우자 상실은 애착의 대상인 사랑스런 인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Lopata, 1996).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서로 간에 공유된 정체성, 예를 들면, 누구의 아내 혹은 남편, 누구의 반쪽, 인생의 동반자 등을 반영한 역할과 전통과 상호관계의 체계가 형성되어 왔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죽음과 함께 이전에 규정된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는 것이다.(Moss & Moss, 1996).

국내에서는 90년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사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강인, 최혜경, 1998; 남인숙, 2000; 노유자,

1995; 전미영, 2000; 정연강, 김경희, 최미혜, 권혜진, 정혜경, 안옥희, 박성학, 1998; 양복순, 2002; 정은, 1994; 이미라, 2005). 하지만 사별 노인을 대상으로 사별 영향, 적응 과정 및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 중 일부는 재혼에 관한 연구이다(전길양, 김정옥, 2000; 김진세, 이현수, 정인파, 곽동일, 1998; 최영아, 이정덕, 2000; 김태현, 한혜신, 1996).

이러한 배우자 사별 영향의 심각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배우자 사별 적응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배우자 사별적응이란 배우자 사별 이후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차적 영향으로 악화된 경제적 상태나 사회적 지위 및 관계의 변화 등에 잘 대처해 나가는 것(Hansson, Carpenter, & Fairchild, 1993; Arbuckle & Vries, 1995)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별적응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별적응을 배우자 상실로 인한 비정상적인 슬픔과 병리적 슬픔을 극복하고 해결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Stroebe, Hansson, Stroebe, & Schut, 2002).

그런데 이러한 사별적응의 관점은 보다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능동적인 관점에서의 사별적응 관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학자들이 레질리언스나 개인 성장(personal growth)과 같은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Wortman, & Silver, 1990). 이는 사별적응에 대한 두 번째 개념으로, 사별적응이란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 사별에 따른 고통과 슬픔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함

으로써 자신의 삶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말한다. Frantz 등(2001)은 사별 슬픔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일깨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종종 사별노인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자기신뢰감, 그리고 사별 이후의 새로운 삶의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성과 새로운 내적 자원 등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Lieberman, 1996; Lopata, 1973; Silverman, 1987). 따라서 사별 이후 보다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개인 성장(personal growth)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처자원은 스트레스와 적응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Hobfoll, 2001). 스트레스-대처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가 대처자원이다.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혹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전략으로(이영자, 김태현, 1992), 대처자원은 스트레스를 대처할 때 사용하는 인간의 내부 혹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강점이 되므로(Lawton, Moss, Kleban, Glicksman, & Rovine, 1991) 대처자원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Lazarus와 Folkman (1984)은 대처자원이란 대처에 앞서서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변수로 보았으며, 대처자원을 두 범주로 나누어 개인속성범주에는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해결 및 사회기술을 포함시켰고, 환경자원범주에는 사회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을 포함시켰다. 한편, 상호작용주의자들은 사별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조건 변수로 대처자원을 보고 있는데, Stroebe와 Stroebe (1989)는

대처자원이 사별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개인내적 자원과 개인외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Allen (1990)은 Arling(1976)의 연구 보고서에 기초하여 사별 적응을 위한 대처자원으로 인지적/교육적 역량, 사회적/대인적 역량, 건강/기능 역량, 경제, 정서, 지역사회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처자원은 어느 한 영역의 자원이 아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은 또한 사별 노인의 적응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대처전략은 개인 내적 및 외적 요구의 갈등(스트레스)을 다루어 나가는 제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사별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요소가 된다. 가장 일반적인 대처전략 유형으로 문제-해결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가 있다(Folkman, Schaefer, & Lazarus, 1979; Leventhal & Nerenz, 1982; Pearlin & Schooler, 1978). 문제-해결 중심적 대처는 사별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노력을 말하며, 정서 중심적 대처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과 의미를 부인하고, 나쁜 것으로 인식된 것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고통스러운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결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의 두 유형의 대처전략 외에 또 다른 관점, 즉 발달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대처전략이 있다. Wortman과 Silver (1990)는 성공적으로 사별에 적응한다는 것이 항상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

는 것으로 보고, 사별적응을 위한 전생애 발달 관점의 효과적인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전생애 발달 관점의 대처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선택, 최적화, 보상 모형이다. 전생애 발달 관점에서 삶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강조한 Baltes & Baltes(1990)의 선택, 최적화, 보상(SOC) 모형은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감에 따라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세 가지 생애 관리 전략(life management strategies)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선택(selection)은 연령 증가에 따른 쇠퇴와 감소분이 증가하므로 높은 수행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그 외 다른 영역은 무시하는 전략이다. 최적화(optimization)는 일반적인 잠재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자신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영역의 수행을 최대화하는 행동이다. 보상(compensation)은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문제 해결 상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때, 특정한 학습행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쇠퇴분(상실분)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Baltes, 1993).

이러한 선택, 최적화, 보상(SOC) 생애 관리 전략은 사별 노인의 적응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coping)를 개인의 가용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 특정한 내적 욕구와 외적 요구를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 개인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은 그 개념상 대처전략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더군다나 노인의 사별 문제는 스트레스 관점과 함께 생애발달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발달관점에서 상실되어지는 부분을 효율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은 대처전략으로서 선택, 최적화, 보상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죽음의 질의 경험, 즉 배우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에 대한 경험은 노인의 사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ebate of the Age Health and Care Study Group(1999)에서는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좋은 죽음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죽음과 남은 삶에 대한 예상, 남은 인생에 대한 조절능력,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 통증과 증상의 조절, 임종장소 선택, 전문가로부터의 정보 습득, 영적, 정서적 지지, 호스피스 간호, 임종시 함께 할 사람의 선택 가능, 자신의 생명 연장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이별 시간을 갖는 것, 무의미한 생명 연장 하지 않기 등이다. 애착이론과 스트레스 이론은 배우자의 죽음의 질이 배우자 사별 노인의 삶의 질과 사별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Carr, 2003). 배우자가 임종 과정 속에서 준비되고 죽음을 수용하며 충분한 돌봄을 받고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등 좋은 죽음(good death)을 맞이하였다면, 사별 후 생존한 노인은 분노나 극심한 고통, 우울 등의 병적 슬픔이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 분노하고 부인하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불안 상태를 경험하는 등 적응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 혹은 좋은 죽음(good death)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포함한다(Field & Cassel, 1997; Hospice Education

Institute, 2001; National Hospice Organization, 1998; Pierce, 1999).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죽음은 충분히 살았다고 여겨질 때 이루어져야 한다; 죽음 과정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죽음은 비교적 덜 고통스럽고 비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혹은 그 가족들은 임종 치료에 대한 결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Wethington과 Kessler(1991)는 대처전략과 대처효과성에 대한 상황적 결정요인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나이, 성별, 성격, 혹은 사회적 자원이나 관계 등과 같은 사건의 맥락과 대인관계, 질병, 죽음 등과 같은 사건의 유형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쳐 회피,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 인지, 종교, 사회적 지지, 긍정적 평가 등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대처 과정 모형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 모형이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사별 당시 노인이 보유한 대처자원이 대처전략과 사별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과 사건의 유형, 즉 배우자의 죽음과정 경험으로서의 배우자 죽음의 질이 대처전략과 사별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노인의 사별 노인 적응 모형을 제시하고, 노년기 발달적 관점을 고려한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사별 노인들의 효과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 그리고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 수준이 사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배우자 죽음의 질 및 대처자원이 노인의 사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이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배우자를 사별한지 5년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40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사별노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사별기간, 자녀동거 여부, 경제적 수준, 종교 유무, 지역 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03명(25.6%), 여성이 299명(74.4%)으로 남성 사별노인이 여성 사별노인 1/3 정도였다. 연령은 평균 73.6세로 5년 단위로 구분했을 때 각 연령대간에 비슷한 분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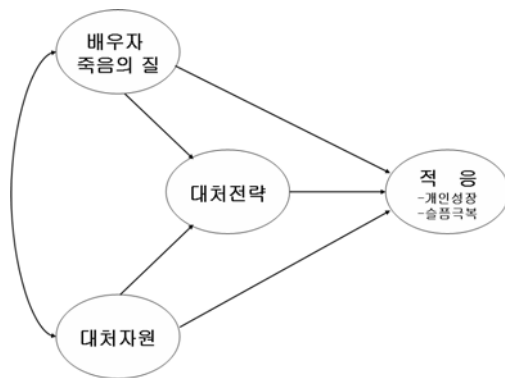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결과

변 수		빈 도	백분율(%)
성별	남	103	25.6
	녀	299	74.4
연령	69세 이하	111	27.6
	70~74세	114	28.4
	75~79세	110	27.4
	80세 이상	67	16.7
학력	무학	76	18.9
	서당	8	2.0
	초등학교	136	33.8
	중학교	72	17.9
	고등학교	76	18.9
	대학 이상	34	8.5
사별기간	1년 이하	51	12.7
	~ 2년	51	12.7
	~ 3년	48	11.9
	~ 4년	78	19.4
	~ 5년	174	43.3
만성질환 유무	질환유	306	76.1
	질환무	96	23.9
경제적 수준	하	27	6.7
	중하	202	50.2
	중상	121	30.1
	상	52	12.9
종교유무	종교유	330	82.1
	종교무	72	17.9
지역	대도시	217	54.0
	중소도시	105	26.1
	농어촌	80	19.9
	계	402	100.0

보인다. 65~69세가 111명(27.6%)이며, 70~74세가 114명(28.4%), 75~79세가 110명(27.4%), 그리고 80세 이상이 가장 적은 숫자인 67명(16.7%)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36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54.7%)와 중학교 졸업 이후(45.3%)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사별기간에 있어서는 4년 이상에서 5년 까지가 174명(43.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년 이상 4년 이하가 78명(19.4%)이며, 나머지 1년부터 3년까지가 각각 비슷하였다. 만성질환 유무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는 노인이 306명(76.1%)으로 2/3 정도를 차지했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지 않는 노인이 96명(23.9%)이었다. 경제적 여유수준에서는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대상이 202명(50.2%)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편이다’고 응답한 대상이 121명(30.1%)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종교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종교를 가진 대상이 330명(82.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특성에서는 대도시가 217명(54.0%)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이 각각 105명(26.1%)과 80명(19.9%)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대처자원

대처자원 변수로 사용할 척도는 대처자원설문(Coping Resources Questionnaire)으로서 피드몬트 노인 생활 향상 프로젝트(PLEA, Piedmont Life Enrichment for the Aged)에 사용되어

Arling(1976)에 의해 보고된 척도를 기초로 Allen(1990)이 일부 수정 보완하여 50문항(5점 척도)으로 개발된 척도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신뢰계수는 .79이다. 각 하위 개념들은 인지적/교육적 자원, 사회적/대인적 자원, 건강/기능 능력 자원, 경제적 자원, 정서적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등의 여섯 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한국적 상황과 맞지 않는 문항을 삭제하여 39문항을 사용하였다.

배우자 죽음의 질

배우자 죽음의 질에 사용한 척도는 Weiss와 Richards(1997)가 사별 스트레스 회복의 질 척도 개발에 사용한 코딩북을 참조하여 총 13문항을 기초로 사전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척도문항의 주요 내용은 마지막 임종시기와 임종 직후의 행동과 태도 및 관계, 그리고 가족지지, 수발부담, 임종 시기의 적절성 등이다.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

본 연구에 사용되는 선택, 최적화, 보상(SOC) 척도는 Baltes, Baltes, Freund, & Lang(1995)이 SOC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SOC 척도는 임의적 선택(elective selection), 상실에 기반을 둔 선택(loss-based selection),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당 12문항으로 총 48문항을 각 하위척도당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재구성한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대상변수(target)와 방해변

수(distractor)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피험자로 하여금 적절한 변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변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1점, 방해변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0점을 채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네 가지 하위척도별 점수를 총합하여 사용한다. 합산하면 최고점이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SOC 전략의 사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신뢰계수는 .81이었다.

사별 적응

사별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 아래의 2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별의 슬픔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슬픔극복척도(Grief Resolution Index)와 사별 이후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 경험 여부를 측정하는 인지된 개인성장(Perceived Personal Growth)척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별적응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슬픔 극복. 슬픔 극복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 슬픔극복척도(Grief Resolution Index)는 Remondet와 Hansson(1987)이 개발한 도구로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 사별 슬픔을 해결해 나가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 사별과 관련된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연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으며, 사별 기간과 크게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도구로,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다.

개인 성장.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기금 지원으로 디트로이트

트 시(市)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297명(배우자 사별 노인 210명, 배우자 생존 노인 87명)을 1987년에서 1988년에 걸쳐 6개월간 인터뷰한 노인 부부의 삶 개선(Changing Lives of Older Couples) 프로젝트 연구에서 Carr(2004)가 원용한 인지된 개인 성장(Perceived Personal Growth)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사별 후 만 5년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21일부터 2006년 11월 20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명의 사별노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검토,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은 언어 및 소통에 불편함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직원 및 책임자를 통해 대상자를 물색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자와 조사 교육을 받은 조사원의 개별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사별한지 5년 이내의 노인 표본이 적은데다 사별노인의 특성상 무선표집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편의표집을 통해 조사하였다. 총 445부가 수거되었으나, 사별기간이 초과하거나 응답 누락이 많은 설문지와 역문항 검토를 통해 무성익한 설문지 43부를 제거한 총 40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인 사별노인이 나타내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별적응 관련 변수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척도에 따라 주축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 methods)와 사각회전(direct oblimin)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변수 중 배우자 죽음의 질 척도는 서로 상이한 척도들이 섞여 있어서 평균값을 중심으로 이분화하여 각각 0점과 1점으로 재조정된 후 범주 변수의 요인분석에 강점을 가진 Mplus 4.0의 WLSMV(weighted least square mean and variance-adjusted) 추정방식과 promax 회전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 분석은 내적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모형의 검증을 위해 AMOS 6.0을 이용하였으며, 추정방식으로는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고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경로의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배우자 사별 적응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 모형의 검증에 앞서 각 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별 적응 변수인 슬픔극복과 개인성장이 각각 한 요인으로, 대처전략은 임의적 선택, 상실에 기반한 선택, 최적화, 보상의 네 요인으로, 배우자 죽음의 질은 죽음준비과정, 수발부담, 사별시기 적절성 등의 세 요인으로, 대처자원은 인지적-교육적 자원, 신체적-기능적 자원, 사회적-대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심리적-정서적 자원,

지역사회 자원 등 여섯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각 변수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의 정상성을 보여주는 왜도와 첨도를 제시하였다. 표본의 분포 경향을 살펴볼 때 왜도와 첨도가 정상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 및 하위요인별

표 2. 변수 및 하위 요인에 대한 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가능점수	왜도	첨도	문항수	신뢰계수
사별적응 합	34.58	6.31	9~55	-.30	-.30	11	.795
슬픔극복	22.42	4.05	5~35	-.28	-.24	7	.668
개인성장	12.17	3.22	4~20	-.20	-.83	4	.813
대처전략 합	6.25	3.23	0~12	-.04	-1.04	12	.787
임의적 선택	1.70	1.13	0~3	-.26	-1.33	3	.667
상실에 기반한 선택	1.36	.99	0~3	.22	-.99	3	.607
최적화	1.82	1.22	0~3	-.41	-1.44	3	.776
보상	1.38	1.03	0~3	.18	-1.10	3	.682
죽음의 질 합	4.61	1.79	0~9	-.09	-.46	9	.503
죽음준비과정	2.87	1.48	0~5	-.37	-.77	5	.549
수발부담	.82	.86	0~2	.35	-1.56	2	.690
사별시기 적절성	.92	.84	0~2	.15	-1.57	2	.603
대처자원 합	99.44	14.81	32~160	-.30	.34	32	.919
인지-교육적 자원	18.21	4.06	6~30	.03	.09	6	.849
신체-기능적 자원	16.40	3.48	5~25	-.64	.15	5	.782
사회-대인적 자원	11.61	3.49	4~20	-.16	-.29	7	.776
경제적 자원	23.07	4.39	7~35	-.35	.13	4	.901
심리_정서적 자원	20.26	3.39	6~30	-.37	.31	6	.806
지역사회 자원	13.16	2.96	4~20	-.62	-.03	4	.742

Cronbach's α 내적일치도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다분문항과 이분문항이 섞여 있어서 이분문항으로 재조정된 배우자 죽음의 질 척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변수 간 상관분석

연구 모형의 각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개인성장과 슬픔극복 변수를 합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사별적응 함에 대해 대처자원 함($r=.373$)과 대처전략 함($r=.367$)이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배우자 죽음의 질($r=.245$)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만 독립변수인 대처자원과 배우자 죽음의 질은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변수	사별적응	대처전략	죽음의질	대처자원
사별적응				
대처전략	.367**			
죽음의질	.245**	.137**		
대처자원	.373**	.288**	.018	

* $p < .05$, ** $p < .01$

배우자 죽음의 질, 대처자원, 대처전략 및 사별적응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구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 통계치가 χ^2 가 233.998($df=83$), TLI 가 .827, CFI 가 .862,

$RMSEA$ 가 .074이었다. 전반적 적합도 지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지수(MI , modification indices)를 통해 모형을 일부 수정하였다. 수정지수 값이 보수적인 수준에서 권하는 10 (Fassinger, 1987)을 초과하는 오차변량 중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e5$ 와 $e6$, $e9$ 과 $e10$, 그리고 $e11$ 과 $e13$ 사이를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여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함으로써 모형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로 대처전략의 임의적 선택(elective selection) 오차항($e5$)과 상실에 기반한 선택(loss-based selection) 오차항($e6$)은 본 척도가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임의적 선택과 상실 기반 선택이 구분되지 않고 선택이라는 한 변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선택을 임의적 선택과 상실에 기반한 선택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두 하위변수 간의 설명되지 않는 오차변량 간에 높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경제적 자원 오차항($e9$)과 사회-대인적 자원 오차항($e10$)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오차변량 간에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세 번째로 배우자의 임종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오차항($e13$)은 사별노인의 연령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노인의 연령은 곧바로 노인의 건강수준 및 신체기능 오차항($e11$)과 직결되기 때문에 두 변수의 오차변량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TLI	CFI	$RMSEA$
수정 전 모형	273.196	84	.829	.863	.075
수정 후 모형	174.682	81	.912	.932	.054

은 상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수정 전 모형과 수정 후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을 수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에서 χ^2 가 174.682(df=81), TLI가 .912, CFI가 .932, RMSEA가 .054로 수정 전 연구모형에 비해 수정 후 모형이 TLI, CFI, RMSEA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훨씬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적인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과 각 경로 계수에 대한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의 검증 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죽음의 질은 대처전략인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80, p<.05$). 즉 배우자 죽음

의 질 수준이 높을수록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자원은 대처전략인 선택·최적화·보상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4, p<.01$). 즉, 대처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 죽음의 질은 사별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64, p<.01$). 즉, 배우자 죽음의 질 수준이 높을수록 사별노인의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처자원은 사별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01, p<.01$). 즉, 대처자원을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사별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처전략은 사별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7, p<.01$). 즉, 대처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사별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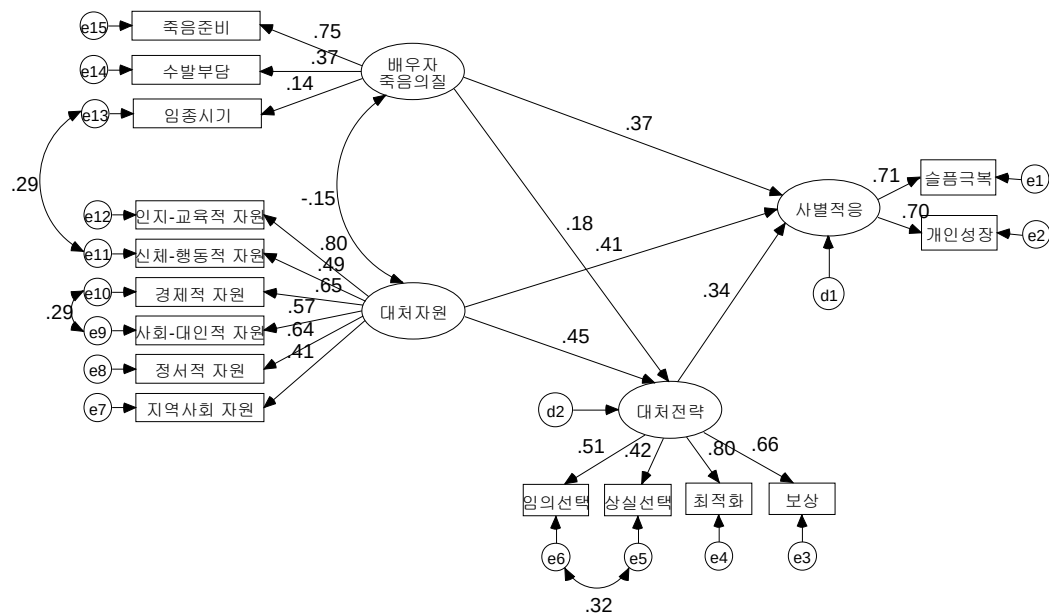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수정 모형(표준화계수)

표 5. 수정 연구모형 추정 결과

변수 간 경로			B	β	S.E.	t
죽음의 질	→	대처전략	.091	.180	.046	1.993*
대처자원	→	대처전략	.076	.444	.013	5.680**
죽음의 질	→	사별적응	.133	.364	.048	2.742**
대처자원	→	사별적응	.049	.401	.010	5.037**
대처전략	→	사별적응	.250	.347	.061	4.061**
사별적응	→	슬픔극복	1.000	.711		
	→	개인성장	.789	.706	.088	9.018**
대처전략	→	임의선택	1.706	.800	.208	8.200**
	→	보상선택	1.186	.658	.146	8.100**
	→	최적화	.728	.418	.097	7.505**
	→	보상	1.000	.505		
배우자 죽음의 질	→	죽음준비과정	1.00	.761		
	→	수발부담	.276	.362	.092	3.010**
	→	임종시기	.103	.140	.052	1.980*
대처자원	→	교육_인지적자원	1.000	.826		
	→	신체_기능적자원	.567	.543	.054	10.526**
	→	경제적자원	.670	.644	.056	11.932**
	→	사회_대인적자원	.747	.571	.071	10.489**
	→	심리_정서적자원	.650	.642	.054	12.030**
	→	지역사회자원	.365	.414	.048	7.667**

* $p < .05$, ** $p < .01$

것이다.

표준화 계수(β)를 통해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첫째,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이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처자원($\beta = .444$)이 배우자 죽음의 질($\beta = .180$)에

비해 대처전략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이 사별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처자원($\beta = .401$)이 배우자 죽음의 질($\beta = .364$)에 비해 사별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셋째, 대처전략이 사별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력의 크기가 $\beta=.347$ 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별적응에 대한 영향력의 직접 효과 결과만을 살펴볼 때, 사별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대처자원($\beta=.444$)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하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첫째, 사별적응의 하위 요인인 슬픔극복($\beta=.711$)과 개인성장($\beta=.706$)은 모두 사별적응 변수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슬픔극복 요인이 개인성장 요인에 비해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둘째, 대처전략의 하위 요인인 임의적 선택($\beta=.800$)과 상실에 기반한 선택($\beta=.658$), 최적화($\beta=.418$), 그리고 보상($\beta=.505$) 요인 중에서 임의적 선택 요인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실에 기반한 선택과 보상, 최적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처전략에 있어서 최적화나 보상 전략에 비해 선택 전략이 사별 적응에 더 큰 상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배우자 죽음의 질에 있어서는 죽음준비과정($\beta=.761$), 수발부담($\beta=.362$), 그리고 임종시기 적절성($\beta=.140$)의 하위 요인 중에서 죽음준비과정 요인이 가장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발부담과 임종시기 적절성의 순이었다. 넷째, 대처자원에 있어서는 교육적-인지적 자원($\beta=.826$), 신체적-기능적 자원($\beta=.543$), 경제적 자원($\beta=.644$), 사회적-대인적 자원($\beta=.571$), 심리적-정서적 자원($\beta=.642$),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beta=.414$) 등의 하위 요인들이 있

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하위 요인들이 대처자원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대처자원 변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은 교육적-인지적 자원이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자원과 심리적-정서적 자원이 거의 동일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대인적 자원과 지역사회 자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큰 상관을 보이는 경제적 자원 요인은 사별 노인의 적응을 돕는 대처자원으로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회적-대인적 자원과 신체적-기능적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모두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죽음의 질 및 대처자원이 사별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전략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죽음의 질 및 대처자원과 사별적응 사이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매개모형의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홍세희, 2005; Roberson, Moye, & Locke, 1999). 첫 번째, 독립변수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에서 매개변수 대처전략으로 가는 경로(a, b)가 유의하며, 동시에 매개변수인 대처전략에서 종속변수인 사별적응으로 가는 경로(c)가 유의한지, 그리고 매개효과 $a*b$ 와 $a*c$ 가 유의한지 부분 매개모형을 이용해서 평

가한다. 두 번째, 경로 a, b와 c가 유의하고 매개효과 ab와 ac가 유의하면, 대처전략은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 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사별적응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으므로 매개모형을 지지한다. 세 번째, 부분 매개모형의 매개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는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카이제곱값(χ^2)과 적합도 지수의 차이를 통해 두 경쟁모형을 비교한다.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 계산 공식을 사용하였다 (Sobel, 1982; MacKinnon & Dwyer, 1994)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매개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경로계수(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직접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로 가는 간접효과이며 간접효과는 곧 매개효과를 말한다 (Kenny, 1979).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내며,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이다. 표 6에서 부분 매개모형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배우자 죽음의 질과 사별적응을 대처전략이 매개하는 경로에서는 전체효과가 $B=.155(\beta=.426)$ 로 직접효과 $B=.133(\beta=.364)$ 와 간접효과 $B=.023(\beta=.062)$ 이며, 대처자원과 사별적응을 대처전략이 매개하는 경로에서는 $B=.068(\beta=.555)$ 로 직접효과 $B=.049(\beta=.401)$ 와 간접효과 $B=.019(\beta$

표 6. 매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전체효과

변수	간	경로	B	β	S.E.	t
죽음의 질	→	대처 전략	.091	.180	.046	1.993*
대처 자원	→	대처 전략	.076	.444	.013	5.680**
죽음의 질	→	사별 적응	.133	.364	.048	2.742**
대처 자원	→	사별 적응	.049	.401	.010	5.037**
대처 전략	→	사별 적응	.250	.347	.061	4.061**

* $p < .05$ ** $p < .01$

=.154)이었다.

대처전략을 매개로 해서 발생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고찰하기 위해 매개효과 크기의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배우자 죽음의 질과 사별적응 간의 경로에 있어서는 $Z=1.74$ 로 $p < .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작으므로 매개효과의 크기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처자원과 사별적응 간의 경로에서는 $Z=3.323$ 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자원과 사별적응 간의 경로에서 대처전략의 매개효과에 있어서,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049/.068$ (직접효과/전체효과)=.721이므로 약 72%가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며,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019/.068$ (간접효과/전체효과)=.279이므로 약 28%가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대처전략이 배우자 죽음의

표 7.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의 비교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완전 매개모형	200.523	82	.000	.890	.914	.060
부분 매개모형	174.682	81	.000	.912	.932	.054
차이	25.841	1	.000	-.022	-.018	.006

질과 사별적응 사이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처자원과 사별 적응 간의 대처전략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 간에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찾기 위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완전 매개모형의 χ^2 값은 200.523 ($df=82$)이며, 부분 매개모형의 χ^2 값은 174.682 ($df=81$)로 χ^2 차이값이 25.841($df=1$)로 자유도가 1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χ^2 차이값이 3.87 이상이면 유의하므로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TLI, CFI, RMSEA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비교할 때에도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적응 모형 과정과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배우자 죽음의 질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사별노인이 보유한 대처자원이 대처전략과 사별적응, 즉 사별 슬픔의 극복과 사별 이후의 개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전생애 발달 이론에 근거한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배우자를 사별한지 5년 이내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AMOS 4.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우자 죽음의 질과 사별 대처자원을 독립변수로,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을 매개변수로, 그리고 사별적응을 종속변수로 한 인과관계의 최종 수정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에서 χ^2 가 174.682($df=81$), TLI가 .912, CFI가 .932, RMSEA가 .054로 적합한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전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분석결과에서는 배우자 죽음의 질과 사별적응 사이에 대처전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처전략이 대처자원과 사별적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자원과 사별적응 사이의 매개모형에 있어서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의 비교에서는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죽음의 질이 대처전략인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 죽음의 질 척도의 내용처럼 죽음을 알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임종을 맞이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를 나

누며 임종 전까지 좋은 관계 속에서 배우자를 잘 돌볼 때, 그리고 임종을 목전에 둔 배우자를 수발하는 부담이 적을 때, 임종 시기를 보다 적절하다고 받아들일수록 대처전략을 잘 사용함으로써 사별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대처자원은 대처전략인 선택·최적화·보상 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 사용 수준이 높은 것이다. 대처자원의 6가지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별적응을 위한 대처전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자원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하고 볼 수 있다.

셋째, 배우자 죽음의 질은 사별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임종 과정을 지켜보며 그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요, 동시에 오랫동안 함께 했던 배우자의 인생의 결말을 평가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사별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대처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한다.

넷째, 대처자원은 사별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처자원을 많이 보유했다는 사실은 배우자 사별 이후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홀로된 삶에 대한 충격을 완충하며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다섯째, 대처전략은 사별적응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노인이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지 간에 배우자를 상실한 고통스런 상황에 대해 인생의 목표나 삶의 방식, 태도, 역할, 인간관계 등을 보다 효과적이며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홀로된 삶에 빠른 적응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다른 모형적인 삶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등의 최적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또한 재혼이나 대안가족 등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할 만한 보상 전략을 잘 사용할 때 보다 사별에 대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째, 각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결과에서, 사별적응에 대한 영향력의 직접 효과 결과만을 살펴볼 때, 사별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대처자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처전략, 배우자 죽음의 질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자원 변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은 교육적·인지적 자원이었다. 이는 사별한 노인에게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거나 배우고 있으며,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별 적응 대처자원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Rowe와 Kahn(2001)의 성공적인 노화의 3대 요인 중에서 두 번째 요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곱째, 대처전략 하위 요인에 있어서 최적화나 보상 전략에 비해 선택 전략이 사별 적응에 가장 큰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층에 비해 노인들의 경우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적응 대처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여덟째, 배우자 죽음의 질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죽음준비과정 요인이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임종하기 전까지 죽음을 준비하고 수용하며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홉째, 매개효과 검증에서 배우자 죽음의 질은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의 매개를 통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사별 노인의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처자원과 사별 적응 간의 관계에서는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이 매개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대처자원의 확보와 보완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대처전략의 향상을 동시에 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배우자 죽음의 질, 즉 배우자의 임종 과정의 경험과 인지적 평가를 통해서 사별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는데, 노인의 임종 전후에 사별 노인과 배우자를 위한 임종서비스 및 호스피스 등과 관련한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임종 이전 단계에서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도우며, 배우자가 임종할 때까지 노인과 그 배우자를 함께 도와 수발 부담을 덜어주며,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마지막까지 부부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사별 전후의 노인들의 대처자원 보유 수준을 사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별 대처자원의 사정을 통해

취약한 대처자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배우자 사별 노인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실천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의 사별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자원에 대한 매개효과를 입증됨으로써 선택, 최적화, 그리고 보상 등의 대처전략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사별노인들의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직도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적 현실로 인해 사례 표집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무선표집 혹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할당 및 층화표집 등의 원칙을 충분히 따르지 못함으로써 표집의 제한성을 갖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배우자 죽음의 질 척도는 아직 국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문화적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각 나라 및 지역의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한 만큼 한국 문화적 상황에 맞는 죽음의 질 척도가 개발되어야 보다 신뢰성 있는 사별 적응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택, 최적화, 보상(SOC) 대처전략 모형이 매개변수로만 접근을 하였지만, 조절변수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함께 검증하여 두 모형을 비교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처자원으로 영적 자원을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특히 죽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적 안녕감이나 영성, 종교생활 등과 같은 영적 자원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 인, 최혜경 (1998). 여성의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6(4), 95-107.
- 김진세, 이현수, 정인파, 곽동일, (1998). 배우자의 사별한 노인의 우울증상: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를 중심으로. *노인정신의학*, 2(1), 85-93.
- 김태현, 한혜신 (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재혼노인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6(1), 18-38.
- 남인숙 (2000). 상배(喪配)여성의 상실위기 극복과 사회적응 과정. *한국여성학*, 16(2), 175-204.
- 노유자 (2000). 사별간호. *대한간호*, 34(2), 18-26.
- 양복순 (2002). 중년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라 (2005). 애도 개념 개발: 배우자 사별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 김태현 (1992).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할머니와 며느리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2(1), 1-18.
- 전길양, 김정옥 (2000).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3, 155-170.
- 전미영 (2000). 가족 사별 후의 슬픔 경험, 가족의 강인성 및 관리자원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6), 1569-1579.
- 정연강, 김경희, 최미혜, 권혜진, 정혜경, 안옥희, 박성학 (1998). 미망인의 사별 경험. *중앙간호논문집*, 2(1), 1-16.
- 정은 (1994). 상배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사회적 접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아, 이정덕 (2000). 사별 및 이혼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Ⅱ. *한국가족복지학*, 5(2), 87-108.
- 홍세희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다양한 모형: 2005 하계 워크샵 자료집. 한국임상심리학회.
- Allen, S. E. (1990). *A model for predicting bereavement outcome in widowhoo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North Texas.
- Arbuckle, N. Y., & Vries, B. (1995). The long-term effects of later life spousal and parental bereavement on personal functioning. *The Gerontologist*, 35(5), 637-647.
- Arling, G. (1976). Resistance to isolation among

- elderly widows. *International Jour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7(1), 67-86.
- Atchley, R. C. (1994). *Social forces and aging*(7th ed.). Belmont, CA: Wadsworth.
- Baltes, P.B. (1993). The aging mind: potential and limits. *Gerontologist*, 33, 580-594.
- Baltes, M. M., & Baltes, P. B.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behavioral sciences* (pp. 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Baltes, M. M., Freund, A. M., & Lang, F. R. (1995). *Measurement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by questionnaire*. Berlin: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 Blieszner, R., & Hatvany, L. E. (1996). Diversity in the experience of late-life widowhood. *Journal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Loss*, 1, 199-211.
- Carr, D. (2003). A good death for whom? Quality of spouse's death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widowed pers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2), 220-235.
- Carr, D. (2004). Gender, preloss marital dependence, and old adults' adjustment to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1), 215-232.
- Clayton, P. J. (1979). The sequelae and nonsequelae of conjugal bereave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530-1534.
- Debate of the Age Health and Care Study Group (1999). *The future of health and care of older people: The best is yet to come*. London: Age Concern.
- Field, M. J., & Cassel, C. K. (1997). *Approaching death: improving care at the end of life*. Washington, DC: Institute of Medicine.
- Folkman, S., Schaefer, C., & Lazarus, R. S. (1979). Cognitive processes as mediators of stress and coping. In V. Hamilton & D. M. Warburton(Eds.), *Human stress and cognition: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pp. 265-298). London: Wiley.
- Frantz, T. T., Farrell, M., & Trolley, B. C. (2001). Positive outcomes of losing a loved one. In R. A. Neimeyer(Ed.),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pp. 191-20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nsson, R. O., Remondet, J. H., & Galusha, M. (1993). Old age and widowhood: Issues of personal control and independence. In M. S. Stroebe, W. Stroebe, & R. O. Hansson(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367-3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Hansson, R. O., Carpenter, B. N., & Fairchild, S. K. (1993). Measurement issues in bereavement. In M. S. Stroebe, W. Stroebe, & R. O. Hansson(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62-74). New York: Cambridge

- University.
- Hobfoll, S. E. (2001). The influence of culture, community, and the nested self in the stress process: Advancing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0, 337-370.
- Hospice Education Institute. (2001). *A short histor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ssex, CT: The Hospice Education Institute.
- Kenny, D. A. (1979). *Correlation and causality*. New York: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Lawton, M. P., Moss, M., Kleban, M. H., Glicksman, A., & Rovine, M. (1991). A two-factor model of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46(4), 181-189.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Springer.
- Leventhal, H., & Nerenz, D. R. (1982). A model for stress research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control of stress disorders. In D. Meichenbaum & M. Jeremko(Eds.), *Stress prevention and management: A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 (pp. 5-38). New York.: Plenum Press.
- Lieberman, M. A. (1996). Perspective on adult life crises. In Vern Bengtson(Ed.), *Aging and Adulthood* (pp. 146-167). New York: Springer.
- Lopata, H. Z. (1973). *Widowhood in american city*. Cambridge, MA: Shenkman.
- Lopata, H. Z. (1996). Current widowhood: Myths and realities. Thousand Oaks, CA: Sage.
- MacKinnon, D. P., & Dwyer, J. H. (1993). Estimating mediated effects in prevention studies. *Evaluation Review*, 17, 144-158.
- Moss, M. S., & Moss, S. Z. (1996). Remarriage of widowed persons: A triadic relationship. In D. Klass, P. R. Silverman, & S. L. Nickman(Eds.), *Continuing bonds: New understandings of grief* (pp. 163-17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National Hospice Organization. (1998). *National hospice organization committee on medicare hospice benefit and end-of-life care: Highlights of the final report*. Arlington, VA: Author.
- Osterweis, M., Solomon, F., & Green, M.(Eds.). (1984). *Bereavement: Reactions, consequences and care*. ashington, DC: Institute of Medicine.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Pierce, S. F. (1999). Improving end-of-life care: Gathering suggestions from family members. *Nursing Forum*, 34(2), 5-14.
- Rando, T. A. (1993). *Treatment of complicated mourning*. Champaign: Research Press.
- Raphael, B. (1983). *The anatomy of bereavement*. New York: Basic Books.
- Remondet, J. H., & Hansson, R. O. (1987). Assessing a widow's grief-a short index.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3(4), 31-34.

- Roberson, Q. M., Moye, N. A., & Locke, E. A. (1999). Identifying a missing link betwee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4), 585-593.
- Rosenblatt, L. M. (1993). The transactional theory: Against dualisms. *College English*, 55, 377-386.
- Rowe, J. W., & Kahn, R. (2001). 성공적인 노화. 최혜경, 권유경 공역. 서울: 학지사.
- Silverman, P. R. (1987). Widowhood as the next stage in the life course. In H. Z. Lopata(Ed.), *Widows: North America* (pp. 171-190).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oebe, W., & Stroebe, M. S. (1987). *Bereavement and heal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oebe, W., & Stroebe, M. S. (1989). Bereavement and health: Processes of adjusting to the loss of a partner. In L. Montana, S. Filipp, & J. L. Melvin(Eds.), *Life crisis and experiences of loss in adulthood* (p. 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Stroebe, M. S., Hansson, R. O., Stroebe, W., & Schut, H. (2002).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iss R. S., & Richards, T. A. (1997). A scale for predicting quality of recovery following the death of a partn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4). 885-891.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91). Situations and processes of coping. In J. Eckenrode(Ed.), *The social context of coping*. New York: Plenum Press.
- Wortman, C. B., & Silver, R. C. (1990). Successful mastery of bereavement and widowhood: A life-course perspective. In P. B. Baltes, & M. M. Baltes(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behavioral sciences* (pp. 225-26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차원고접수 : 2007.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7. 09. 02.

최종게재결정 : 2007. 09. 04.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Quality of Conjugal Death, Coping Resources in the Adjustment to Widowhood among Older Adults - The Mediating Effect of 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SOC) Coping Strategies

Eui-Seong Sohn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Se-Hee Hong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structural model of adjustment to widowhood, and the group differences in the causal model by multi-group simultaneous analysis. The research model hypothesized that the quality of conjugal death, coping resources and coping strategies affect adjustment to widowhood among the elderly, and that coping strategies mediate between the quality of conjugal death, coping resources and adjustment to widowhood. For the purpose of empirical testing,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nationwide on the bereaved. The sample was restricted to 65 year old people less than 5 years after bereavement. 402 samples (103 males: 299 females)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follow. First, the causal model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at all exogenous variables (quality of conjugal death, coping resources and coping strategies) positively affected the adjustment to widowhood among older adults. Second, coping strategies were demonstrated to mediate between coping resources and the adjustment to widowhood, and the partial mediating model was more suitable than the full mediating model.

Key words : bereavement, adjustment to widowhood, quality of conjugal death, coping resources, coping strategies